



# “동병상련의 아픔 함께 나눠요”

유방암 생존자 검진 프로그램  
MD대 보건대학원, 참가자 모집

메릴랜드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한인 여성들을 위한 '유방암 생존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(Together)' 2기 참가자를 모집한다.

오는 9월 첫 주부터 시작될 프로그램은 메릴랜드와 버지니아, 워싱턴DC 지역에 사는 25-70세 사이의 한인 여성으로 유방암 0-3기 진단을 받은 후 현재 치료 중이거나 최근 2년 안에 치료를 마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다. 유방암 진단을 받은 시기가 최근이 아니더라도 현재 본 치료를 받는 중이거나 또는 후속치료를 받는 사람도 참여 가능하다.

프로그램은 메릴랜드 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이선민 교수와 연



지난 26일 버크 레이크 파크에서 열린 유방암 생존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서포트 그룹 참가자들이 함께 걸으며 힘이 되어 주고 있다.

구팀에 의해 진행되며, 미국 국립 보건원 (NIH) 산하 국립 암 연구소(NCI)가 연구비를 지원하는 최초의 한국어 암 생존자 프

로그램이다. 한편 지난 봄 총 7주 동안 여러 곳에서 진행된 투게더 1기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거주 지역별

로 자체 서포트 그룹을 만들어 만남을 계속하고 있으며 버지니아 그룹은 지난 26일 버크 레이크 파크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.

이선민 교수는 “참여자들께서 꼭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함으로써 큰 위로와 격려를 받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난다”고 말했다.

항암치료 중인 이 모씨는 “모르고 불안해하던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니까 불안하지 않아 좋았다.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라서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고 교감할 수 있어 좋다”고 설명했다.

문의 (240)473-2845 엄성혜

kbcstogether@gmail.com

(정영희 기자)